

## 제4강 빌헬름 플루스 『코뮤니콜로지』 II

(1교시)

기원전 약 2000년대 중반에 알파벳으로 씌어진 수천 개의 벽장식들이 크레타 섬과 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이 알파벳은 한편으로는 고대 히브리어를 의미하고, 그 후 ‘선형 A’로 불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 그리스어(‘선형 B’)를 의미한다.(97) ... 이 벽장식들은 동일한 알파벳으로 코드화되어 여섯 개의 언어로 씌어진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여섯 개의 텍스트에 담긴 정보는 동일하다.(99)

알파벳화된 엘리트는 무역인과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요한 정보는 상품의 창고 목록, 선박의 적재 목록, 계산서, 양과 무게의 계산과 관련된 것이었다. ... 알파벳 코드는 계산과 숫자, 무게와 양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다. 알파벳 코드는 상형 문자처럼 사제에 의한, 사제를 위한 코드가 아니었다. 또한 왕이나 전사 혹은 수공업자나 예술가, 농부나 목동과 같은 민중을 위한 코드도 아니었다. 바로 상인을 위한 코드로 창조되었다. ...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그림 창조’를 우상 숭배로서 금지한다면, 그것은 그림 문자와 상형 문자에 대항하는 상인 코드를 방어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신화’에 대한 공격도 상상적 코드에 대항한 로고스, 곧 알파벳적 상업 코드의 방어로 간주되어야 한다. ... 기원전 800년대에 알파벳은 ‘신성해’지기 시작하고(성경과 호머), 이로써 알파벳의 세속적 기능은 은폐된다. ... 알파벳(엘리트 코드)과 그림 코드(민중의 코드)간의 투쟁, 즉 계산적(역사적) 의식과 상상적(마술적) 의식 간의 투쟁, 의식(儀式)에 대항한 계산, 상상에 대항한 개념, 그림에 대항한 자모.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즉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 시작해 스킴라 철학을 거쳐 휴머니즘까지 시대를 지배한 주제다. 이는 ‘역사의 핵’이다.(100)

줄 속에서 자모의 ‘선명성과 차별성’과 줄들의 발전적 직선성은 비로소 서서히 의식 속으로 침투했으며, 그 의식을 프로그램화 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이었다는 것이다. ... 이 문명화는 유대인적 요소와 그리스인적 요소 간의 끊임없는 내적 대화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대화가 극소수의 엘리트로 제안된 과정, 즉 알파벳 텍스트들간의 대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101)

이러한 [엘리트 중심적인] 상황은 서기 1500년경 변한다. 인쇄된 텍스트 덕분에 다수 대중은 역사에 의해 흡수된다. 서양 문명화의 내적 분열성과 외적 역동성은 폭발하고, 서양의 문명은 다음 400년이 흐르는 동안 지구를 홍수로 뒤덮는다. ... 알파벳 구조에 의해 프로그램화된 사회는 이제는 비로소 알파벳 코드의 마지막 결과들, 즉 정확한 과학과 이 과학에서 유래한 기술을 전개시킨다. 이는 과학과 기술이 전혀 해독할 수 없는 담론으로 통하고 그러한 과학과 기술에 대해 무기력한 인류를 사회가 제압하고 억압할 수 있게 한다.(102)

인쇄된 책의 시대는 역사의 절정기이다.(103)

우리의 세대는 ‘설명’, ‘이론’, ‘계산’, ‘역사’, ‘척도’와 ‘가치’ 등에 대한 ‘좋은 믿음’을 상실할 찰나에 와 있다. ...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존재가 우리 내부에서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우리는 아직 역사 안에 서 있다. 그러니 우리 앞에는 아직

새로운 의식 차원과 같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가 다른 차원들의 단면을 안개 속에서처럼 예상케 하는 심연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다.(104-5)

(2교시)

우리는 당시의 상황(그림에 대항하여 알파벳을 발명해야 했던 상황)과 유사한 ‘존재론적인 혁명’ 속에 서 있다.(106)

선형 문서의 발명자들은 이러한 발명이 이론과 기술, 발전과 세계 변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한 개념들은 그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선형 문서를 발명했지만, 그러한 의미는 그들 자신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조상들처럼 새로운 종류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우리 역시 인생이 무의미해지려는 위협을 받고 있다. ... 사진, 영화, 텔레비전 화면과 빨간 신호등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뛰어 들어간 세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계를 우리의 과거 프로그램에 기초해 프로그램화해야 하기 때문이다.(107)

성스러운 과정으로서 ‘발전’에 대한 믿음(마르크스주의에 의해 마지막 절정을 체험하고 난 뒤 동시에 반전이 시작되었다.) 역시 서서히 설명과 논쟁에 대한 관심, 간단히 말하면 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이러한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관심의 마비는 무엇보다도 인쇄된 종이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진기한 현상을 통해 위장되어 있다.(108)

p.110의 도표

세계 ← 그림 ← 텍스트 ← 기술적 형상

전-알파벳적인 그림은 세계를 의미해야 하고, [텍스트는 전-알파벳적인 그림을 의미해야 하고], 기술적 형상은 세계를 의미하는 그림을 의미하는 텍스트를 의미해야 한다.

사진사는 문필가 뒤에 서 있고, 문필가는 화가의 뒤에 서 있으며, 화가는 세계의 뒤에 서 있다.(110)

그림은 상징들로 덮인 평면을 의미한다. 그림은 하나의 평면이며, 이 평면 속에서 상징들은 4차원적 시공간에 있는 상징들의 의미들처럼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림은 구체적인 4차원적 관계들의 2차원적 축소다.(119)

상상은 그림으로 암호화하고 그 그림을 해독하는 능력이다.(123) 상상은 세상의 대상물들 간의 관계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상상은 알 수 없게 되어 버린 세계와 인식을 원하는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심연에 그림을 통해 다리를 놓고 중재하는 능력이다. 설명은 상상된 관계들을 개념적인 관계들로 대체하는 것이다.(124)

우리는 그림 속에서 상징들을 정돈하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의 상상적 관계들이 모

르스 알파벳 속의 관계들처럼 함의적(관습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림의 함의성, 인위성, 그리고 기술성을 잊어버릴 정도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우리는 그림들을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 우리는 그림을 통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그림들의 맥락으로서 보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의식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파괴된다.(125-126)

그림의 조합을 유도하는 통시성의 동시화와 그림의 해독을 허용하는 통시성의 통시화는 본질적으로 상상을 위한 특별한 시간 경험이다. 그것은 회귀의 시간 구조다. ... 원을 그리는 상상의 시간, 파종과 수확의 시간, 밤과 낮의 시간, 탄생과 죽음의 시간은 [선형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하다.' 즉, 시간은 정지 상태다. [여기에서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전에'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뜨면 닭이 울 수 있듯이, 닭이 울면 해가 뜰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해-닭의 관계는 통시성의 동시화, 즉 '함께 있는 것이'이며, 어떤 것도 다른 것 없이는 상상될 수 없다. 이렇게 요소들을 함께 보는 것, 장면의 전체 속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의 상호보완성, 원을 그리는 시간을 통한 공간의 정돈, 이 모든 것은 '마술적 의식'이다.(128-9)

그림의 질서는 텍스트처럼 설명하는 질서가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인 질서다.(129) 신, 요정, 그리고 영혼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죽지 않는, 즉 순환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전체 안에서 사물들 간의 관계를 위해 지어진 이름들이다. ... 이에 반해 세계 사물들의 현상성은 무섭다. 그러한 그림적인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림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규칙 위반은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 이탈은 '보복을 받는다'. 따라서 인생은 이 단어(entsetzlich, 무서운, 자리를 떠나는) 어원적 의미에서 '무섭다'.(130-1) ... 이 순간부터 그림들은 이 무서움을 비껴나가는 전략에 봉사하며, 마술적 도구로 작동한다. ... 그림들이 이러한 마술적 차원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 이 그림들은 세계에 대해 불투명해지고 오직 그림들로서 '기도(祈禱)될' 때 비로소 상상의 기능은 종결된다. 즉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림 속에 코드화된 세계는 인간을 체험의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벽에 막혀 '환영적'이고 '환상적'인 것이 된다. ... 이렇게 상상에서 환상으로의 전환을 통한 위협적인 개인적, 집단적 광기의 상황에서 선형 문서의 발명은 구체책으로서 느껴졌을 것이 분명하다. 그 의도는 불투명하게 된 그림들을 다시 투명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132-3)

그림을 텍스트로 번역함으로써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획득했다.(142-3)

우리는 텍스트 뒤에서 더 이상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텍스트의 창조자로 본다. (고전물리학의 이면에서 자연의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뉴턴을 보고, 헤겔 철학의 이면에서 인간의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헤겔을 보며, 카라마조프의 형제 이면에서 인간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를 본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텍스트가 '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곧 '세계'를 의미하는 그림을 의미하는 의미)는 불투명하게 되었다.(117)

인간과 텍스트 간의 관계가 방향을 선회하는 순간, 우리가 세계를 더 이상 책을 통해 인식

하지 않고 그 반대로 세계를 책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모두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텍스트가 중재하는 것을 중단하고 벽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이에 대한 징후는 텍스트의 정보에 대해 상상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 선형 코드가 의미하는 그림으로부터 독립하면 할수록, 읽을 때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면 질수록(예를 들면 방정식을 읽을 때), 텍스트의 의미는 더 회의적으로 된다. 그리고 읽을 때 그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림을 만들려는 것이 오류인 순간, 이 텍스트는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144)

상상이 불가능한 텍스트는 '광기'이며, 이러한 텍스트가 기능하면(테크놀로지의 텍스트처럼), 이 텍스트는 '미친', 실존적으로 더욱더 낮설게 하는 코드(기술적인 객체들)로 유도한다.(145-6)

텍스트가 그림처럼 환상적으로 되었다는 사실, 침투할 수 없는 책의 벽 안에 사는 광기는 책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어야 할 광기보다 덜 가공할 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침투가 불가능한 텍스트에 의해 프로그램화된 존재의 이러한 광기를 보여주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143)